

평화를 꿈꾼 질곡의 생애 '다시 광야에서'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획전

1980년 5월 광주, 사형선고, 미국망명, 가택연금, 6·15남북정상회담, 남북이산가족 상봉...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관통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애를 돌아본 전시가 절찬리 진행 중이다. 화해와 용서, 평화를 꿈꾼 질곡의 생애가 펼쳐진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김대중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며 그가 남긴 정신적 유산과 광주 정신이 공명하는 지점에 천착하는 '김대중, 다시 광야에서'를 오는 8월 18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관통하는 김대중의 생애를 들여다 본다. 특히 김대중과 광주가 형성한 의미의 그 물방울을 팽팽하게 당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인권으로 두었고 화해와 용서, 평화와 연대의 삶을 실천했던 그의 삶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우리 광주와 닮아 있다. 역사의 현장을 의미하는 이육사의 작품 '광야' 제목을 모티브로 김대중을 다시 조명하고 있는 이번 전시는 총 3부로 구성

'행동하는 양심' 등 3부 구성 '민주주의 역사' 관통한 생애 DJ 정신 담긴 100여점 사료 옥중서신 쓰기 체험 등 다채

됐다. 역사적 사건을 상징하고 DJ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민중미술 회화, 성명서, 금강산 그림, 신문기사 등 100여점의 사료가 전시를 채운다.

제 1부 '행동하는 양심으로'는 김대중과 광주사람들이 뜨겁게 해후했던 1987년 9월 광주로 향한다. 5·18만월묘역에서 부동겨안은 김대중과 광주사람들에 게서 는 절절한 슬픔이 배어나온다. 5월 광주에 없었던 김대중을 광주사람들이 기다려 왔던 이유와 김대중에게 있어 광주의 의미를 되돌아본다. 1987년 6월 항쟁에서 1980년 5월의 현장으로 시간을 거슬러오르는 구조로 구성됐고, 1987년 김대중이 탔던 열차를 전시공간에 재현했다. 맞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획전 '김대중, 다시 광야에서'가 오는 8월 18일까지 열린다.

편으로는 관련한 대형 영상면을 설치해 이해와 몰입을 더했다.

제 2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은 승승장구하던 청년 사업가에서 현실 정치인으로, 마침내 국민의 정부로 나아갔던 김대중의 삶의 궤적을 담았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역사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모습과 더불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견지하며 현실에 맞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면모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한 데 모았다. 또한 국민의 정부가 강조했던 문화와 지식정보화 사회가 지금의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필 수 있도록 했다.

제 3부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평화를 위해 헌신한 김대중의 생

애를 기억하고자 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했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역사를 외면하지 않았던 김대중의 발자취는 그렇게 다시 광주의 5월로 돌아와 있었다. 이곳으로는 평화의 물결을 상징하는 거대한 구조물을 설치해 김대중이 궁극적으로 바랐던 가치를 강조했다. 금강산 관광, 6·15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을 두루 되짚어내며 노벨평화상의 수상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회에서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던 당시의 감옥을 재현했고, 동시에 옥중서신 쓰기 체험 공간도 별도로 마련했다. 김대중 연설 어록 역시 관람객의 걸음을 멈추게 한다. 노벨 평화상 수상 현장을 포토존으로 조성하기도 했다.

최경화광주역사민속박물관장은 "역사 앞에 올곧게 서고자 했던 김대중의 삶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 궁구해보면서 그가 남긴 정신적 가치가 지금 우리의 삶에 확산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글·사진=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중아시아 유목민들은 어떻게 놀까?

ACC '이달의 소장품' 전시

전통놀이 '추코놀이' 등 선배 8월 4일까지 아시아문화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중앙아시아 전통놀이를 선보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올해 두 번째 '이달의 소장품' 전시를 오는 8월 4일까지 아시아문화박물관에서 개최한다.

ACC는 분기별로 아시아 문화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 아시아문화박물관 소장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중앙아시아의 전통놀이 '추코(Chuko) 놀이'와 '토구즈 코르골(Toguz korgool)'에 대해 소개한다.

예로부터 동서 교역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는 주로 유목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가축과 돌멩이, 열매 등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문화가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유목민들은 이러한 다양한 놀이를 통해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왔다.

'추코 놀이'는 가축의 뼈를 이용한 놀이로 중앙아시아 전반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통놀이이다. '추코'는 양의 발목 복사뼈를 뜻하는 키르기스스탄어로, 몽골에서는 사가이,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는 아시크 혹은 아슈쿠라 불린다. '추코'는 옷놀이, 말 경주, 구슬치기 등 100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놀이에 사용되며 점을 치는데도 이용된다. 지난 2014년 '추코 놀이' 중 하나인 몽골의 '샤가이 쏘아 맞추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ACC는 다양한 아시아 문화를 알리기 위해 아시아문화박물관에서 분기마다 '이달의 소장품'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전시가 중앙아시아 유목민의 전통 생활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광주폴리 걸으며 지구 위한 산책해요"

건기 시민프로그램 '랑:도네' 성황

(재)광주비엔날레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5차 광주폴리 '순환폴리 Re:Folly' 시민프로그램 '광주폴리 랑:도네'가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성인인과 어린이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30여 회로 기획된 '광주폴리 랑:도네'는 11회를 진행한 지금까지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고, 5월까지의 프로그램은 연일 접수마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프로그램 '광주폴리 랑:도네'는 회차별 10~15명의 정원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구글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5차 광주폴리 '순환폴리 Re:Folly'의 시민프로그램 '광주폴리 랑:도네'는 쉬지 않고 오래 걷는 '긴 나들이', '긴 산책'을 뜻하는 프랑스어로, 평소 시민들의 산책길로 각광받는 동구 푸른길과 동명동



제5차 광주폴리로 광주 동구 푸른길에 있는 '숨쉬는 폴리'에서 시민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재)광주비엔날레 제공

일대에 조성된 광주폴리 돌레길을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광주폴리와 더욱 친근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4월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문화자원과 공간, 광주폴리에 대한 풍부한 해설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식물 나눔과 텀블러 음료 제공 이벤트에 대다수가 만족했고, 동구 일대를 걸으며 광주 도시재생의 실제 사례인 폴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는 "올해 첫선을 보인 '광주폴리 랑:도네'의 참여자 만족도가 높은 만큼 건축재료 실험실과 워크숍으로 구성된 두 번째 시민프로그램 또한 6월에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폴리는 (재)광주비엔날레가 지난 2011년 마련한 프로젝트로 광주 도심 곳곳에 문화적 힘을 군집시키기 위해 장식적 성격과 기능적 역할까지 아우르는 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이다. **도선인 기자**

광주시립합창단, 다 함께 노래하는 5·18 정신

16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광주시립합창단은 5·18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기획연주회 네 번째(IV) 무대 '광주합창제'를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개최한다. 5·18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노래한다.

이번 연주회는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8개의 합창단(광주챔버싱어즈, 광주여협합창단, 광주에듀과이어합창단, 광주사랑의부부합창단, 광주아무르합창단, 광주아버지합창단, 광주CBS여성합창단, 남구장애인행복이음합창단)과 함께 한다.

다양한 합창단이 모인 만큼 연주곡들도

다양한데, 아름다운 우리 한국 가곡부터 클래식,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각합창단의 특색에 맞춰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공연의 마지막 순서는 전체 9개의 합창단이 한목소리로 희망을 전하는 축하곡 '우정의 노래'다. 마지막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 공연의 막을 내린다.

이준 합창단 부지휘자는 "5·18민주화운동의 아픔과 슬픔도 이제는 빛나는 노래들로 치유하고 승화시키는 공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합창제'는 초등학교 이상 관람 가능하다. 공연시간은 120분이고, 관람료는 전석 만원이다.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및 티켓링크(1588-7890)에서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극단 토박이, 오월극 '버스킹 버스' 공연

17·18일 이틀간 민들레소극장 518 버스 모티브 얻어 창·제작 계엄군 승객 타면서 충돌 그려

지역 대표 극단 토박이가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버스킹(king) 버스'로 관객들을 찾는다.

연극 '버스킹 버스'는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18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이틀간 광주 동구 민들레소극장에서 공개된다.

이 연극은 광주의 시내버스 518번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으로 무대의 배경이 되는 대형 버스 세트장이 눈길을 끈다. 버스 기사와 승객들이 주요 등장인물이며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 내려온 계엄군이었던 한 남성이 버스에 타면서 벌어지는 충돌과 갈등을 그렸다.



극단 토박이가 오월극 '버스킹 버스'를 오는 17일과 18일 민들레소극장에서 선보인다. 극단 토박이 제공

연극 '버스킹 버스'의 극작과 연출은 박정운 상임 연출이 맡았으며 임해정, 박정운, 김정훈, 고영욱, 이종경, 최혜민, 정수

린이 배우로 출연한다. 공연은 사전 예약(062-222-6280-010-3828-6280)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